# 社 說

## 재도약의 힘찬 나래를 펴자

### —개교 43주년을 맞이하여

경희가 이땅에 문화세계창조와 교육입국의 동지를 품고 나래를 편지 어언 43년이 되었다. 그동안 경희는 역사의 시련에 굴하지 않고 창조적 대응과 자취적 기상으로 응전하여 왔다. 안으로는 기라성같은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와 보람된 사회의 창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더구나 학문과 외학 기술분야등에서 이룩한 학술적 업적과 빈곤극복과 인간복원을 통한 인간성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앞자게 수행해온 것은 우리 경희인 모두의 결집된 노력과 헌신으로만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에게 그만큼 많은 지혜를 요구한다. 세계사의 전환과 이시대의 엄청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우리가 지난날의 업적을 심철하고 오늘의 현실적 과제를 정립하려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은 이날을 더욱 의의있게 치르려 한다. 대학은 지금 큰 변화의 중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것은 불편 세계사적인 변화와 때을 같이한다. 이제 이데올로기적 대립시대는 갔으나 그것의 대안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대학은 또한 자체경쟁시대, 고도정보시대에 던져진 노뫼이다. 그동안 발다른 준비 기간은 주어지지 않은 채 문교부의 관장이라는 전단적 평가에 시달려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 시설을 늘리고 교수를 확보해야 하며 연구·복자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같은 지출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몇몇대학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지원도 거의 없고 솜직이 학교재단의 사업확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호의적이 아니었다.

교수협의회, 노조, 학생들의 요구는 거의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반면, 10년 후에는 대학지원자수의 격감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바꾸어 말해 이제 대학은 저나라치게 노정된 경쟁상태에서 "홀로서기" 경정, 매우 높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카다란 시련이며 동시에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결들여, 무엇보다 심각한 현상적 문제는 경증하는 물신의 팽배라 하겠다. 정보전달은 더욱 빨라져 가는데 물신의 벽은 점점 높아진 가는 이 예상. 그것은 다만 대학사회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제분야에서도 같은 추세인 것 같다. 더구나 모든 이가 모든 욕구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산하고 그것도 당장에 그리고 가시적으로 실현하려는 것 같다. 이 두개의 예상적 현상은 우리사회뿐 아니라 대학사회를 크게 혼미스럽게 하고있다.

이같은 시련속에서 우리경희인들의 결집된 지혜가 고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의 선후와 요구의 조정효율화인 단결과 협력을 통하여 물신을 타파하고, 새로운 경희의 창조적 재도약을 이룩할 때이다.

오늘 새경희의 진운을 다시 다짐하는 것도 그와 같은 데 큰 의의가 있으리라 믿는다.

## '광주의 혼'은 말하고 있다

### —5·18 민중항쟁 12주기에 부쳐

5월의 금남로 거리는 여느 도시의 풍경과 다름이 없다. 오가는 차량과 시람들의 행렬은 복잡한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다. 교실은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이것 저것을 다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중의 하나가 망각이다. 망각속에서 인간은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울수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개인이든 사회든 잊어야 할 것과 잊어서는 아니될것이 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극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2년전의 일을 어두운 기억의 저편쪽으로 치부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야 할 한다. 지나간 역사속에서 항상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함은 달위가 아니겠가. 이것은 역사에 대한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80년 5월, 광주는 고립되어 있었다. 철저히 모든것이 차단된 외로운 도시였다. 버림받고 소외되어 버린 서럽고도 서러운 눈물의 도시, 피의 도시였던 것이다. 죽음의 도시, 바로 그것이었다. 12년전 5월의 광주는 그렇게 울고 있었다. 그렇게도 한맺힌 이름을 외쳐간 혁명의 도시가 바로 광주였음을 안다. 총칼로 도륙당하는 분노의 시간속에서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항쟁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기만 한다. 5·18광주민중항쟁은 이땅의 민주화의 상징이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인 것이다. 광주의 피를 희생양으로 해서 출현한 삼민 폭력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성과 잔인성은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할 것이다.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권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없는 모습으로 일관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5공청문회에서 광주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굴절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쌈쌈한만을 부채질하지 않았던가. 국가차원에서 전국민적으로 진상을 밝혀 역사의 냄영한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모두가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해마다 5월이면 광주의 5월을 이야기한다.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하고 말렴등 표지로 함하는 발짐이 끊이질 않는다. 끝없는 집회와 시위로 일관된 5월의 풍경은 이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열의하는 의지의 신물인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도 '그해 5월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진실이 어느정도 밝혀졌고 왜곡되어 왔는지 정확하게 규명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을까. 진상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도 다시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단지 '광주'의 이름을 빌어 자전이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기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깊이 성찰해야 하겠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광주의 기억이 희미해졌는지도 모른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리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광주를 말해야 한다. 군화발로 체이고 태검에 밟혀 죽은 누이들을 이야기하고 군인들의 무차별 난사에 숨진 친구들을 기억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질서있는 평화행렬을 밝혀야하고 진압한 군인들이 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밝혀야 한다. 광주민중들이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 밖에 없었음도 입을 다물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5월은 민주화의 열원이 짓밟혀버린 아픈 기억을 깨닫는 뼈저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민주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기울여야만 하는 달임을 명심하자.

## 총장 기념사 - 개교 43주년

총장 조영식 박사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뜻깊은 개교 43주년을 맞아 우리 모든 경희인의 가슴 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경희가 있기까지 발전의 대열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개 학과의 초급대학에서 시작된 우리 경희가 오늘날 서울, 수원, 광릉, 세곡의 캠퍼스에 17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 규모의 대종합학원으로 성장하여 30만여명의 경희인이 인류사회의 곳곳을 밝히고자 정진하고 있으니 경희가 보낸 지난 세월이 새삼 시공의 압축혀염'을 통한 즐거한 도약이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는 쉬운 교육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모두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자랑실을 가지도 좋을 것은, 이미 오래전에 늘집문명세계의 한계점을 예견하고 '문화세계의 창조'를 교육의 지표로 삼아 민주적 교육의 터를 잡고 그 이상의 실현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한 농촌계몽봉사활동을 필두로 잘삶기 운동과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자건운동, 세계평화운동 및 국민화합운동을 시도가 우리 60개 분과한 문명사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역시는 대학의 숭고한 임무와 한나인 시대에의 봉사, 기여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우리 경희의 이러한 높은 이상과 대안이 선구자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음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업적에 젖혀 안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탈냉전도 긴장을 풀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앞주 7-8년의 노력 여하에 따른 21세기 우리의 위상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대의 도래가 눈앞에 보이고 있으며 세계판도가 새로이 짜져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난 42년간 해왔던 첫처럼 혁시기의 고뢰이 당당히여야할 소명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빈손으로 오늘의 대경희를 만든 우리의 저력을 다시금 한데 모은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우리는 경희가족의 정신으로 인화단결하여 결속을 더욱 다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화합과 발전을 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어느것도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발전이는는 총체적 목표를 가지고 모두가 화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일로매진할 때 우리의 이상과 목표는 기필코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생산성 없는 소모전을 팰칠 정도로 여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즉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경희의 하나됨을 위하여 총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광스러운 경희 50년, 1백년의 원시민을 생각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마라톤 대회를 다져야할 것이며이에 투철한 '스명의식'을 가지고 외래한 희망을 품어주기 바랍니다. 세계문명의 중심지가 곧 우리의 터전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경희가족 여러분!

이제 지난 42년간의 경희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희정신을 되새기고 영롱스러운 개교 50주년 1백주년을 바라보며 그 날에 이르러 세계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학생, 교수, 직원, 동문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학교 설립자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희가족 여러분과 고락을 함께 해온데 대하여 큰 감회를 느끼며 오늘의 이 기쁨을 경희가족 모두와 함께 나누며 경희 미래의 푸단한 도약을 기원합니다.

## '경희' 미래 건설로 매진하자

### 문명사적 요청에 부응한 43년의 발전사

## 明堂 비평

## 한겨레 창간 4돌… 언론사명 재확인해야

권력과 자본에 밀착된 언론, 본명 경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의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얽매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와 권위주의적 정권이 통치하는 현상황에서는 자괴이 데올로기에 흡수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위 민중들의 눈과 귀가 되고자 자처하면서 또한 단지 언론이 지배계층이 하달하는 정보전달매체라 신변잡기의 내용을 다루고자 하지 않을 지언정 언론은 사회구조 속에서 한발짝 벌어져 나와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섬김이 갈구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탄생하는 것이다.

지난 5월15일로써 '한겨레신문'이 창간 네돌을 맞았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기본 정신으로 만들어 왔다 한다. 한겨레신문은 순수 국민자본으로 출발했다. 애초부터 소수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에 소유권이 집중되는 언론독점에서 벗어나도 현대사회에 있어 지배집단의 언론통제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경제적인 통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한겨레신문은 제도권 신문들과는 달리 나름대로 권력과 자본에 구애됨 없이 민중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늘날까지 한길로 매진하고자 하고있다.

창간당시 50만부 발행, 8면으로 시작된 한겨레신문은 현재 16면체제로 정착한 상태다. 그동안 통일지향의 민주언론의 길을 걸으면서 수차례 탄압의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89년 지체내 방북 취재계획으로 리영희 논설고문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예비음모'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한바 있었고 89년 7월 취재과정중에 알게된 서경원의원의 방북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부기자가 무속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차례 편집국의 강제수색, 기자들과 한겨레신문이 인기부원과 군부세의해 수차례 고소를 당하는 수난을 겪어 온바있다.

그만큼 지배세력에서는 눈총을 받아왔으면서도 자체내에서는 민중적 입장을 고수해 온 흔적을 엿볼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당시 국민적 분노를 한층 더 일으켜 복잡을 이끄는데 한몫 하는 동 항상 한국사회를 비타보는 시각을 제시한 교지 기사에 예리한 통찰력과 비평력을 전지켰으며 양비론을 과단 기존제도권 신문들과는 달리 당파성을 고수해 왔다. 세제가 두드러진 채 출발했던 한겨레신문은 이제 일부 지식인 계층만 아니라 여러계층으로 독자층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겨레신문이 빈약한 자산으로 인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1면광고란에 어떤 중요한 사안의 홍보가 필요할때 대기업의 광고가 종종 실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자본에 대한 종속을 엿려시키는가 하면 삼성광고가 전면, 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상업성을 타파하지 못한다는 점도 있는 것이다.

소위 민주언론이라 자처하면서 자본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노정하는 모습은 일견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기에 극복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때 광범한 독자층이 훨씬한 방편이 된다면 신문지제의 노력이 우선 앞서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상에 있어 자립성과 '통일'이라는 기치를 드는 것과 같은 명분 뿐 아니라 진정한 민중의 편에 있기 위해 발 벗고 뛰어야 할 것이다. 이제도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는 한겨레신문은 내돌을 맞는 이제 언론계은 제각기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언론의 시명을 다해야 할 때임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은희 記者〉

## 학사연혁

▲1949. 5. 12. 신흥대학(2년제) 가(假)인가로 설립(영어과, 중국어과, 체육과)

▲1952. 2. 3. 재단을 확충하고 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으로 신흥초급대학 재설립인가(영어과, 중국어과, 체육과)

▲12. 9. 신흥대학(4년제) 승격인가

▲1953. 10. 12. 서울 혜화시 동대문구 현 교지를 확보

▲11. 24. 제1차 5개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본관 대석조전 착공.

▲1955. 2. 28. 신흥대학교(종합대학교) 설립인가(대학원, 문리대, 법대, 정경대, 체육대)

▲3. 1. 초대 총장에 조영식 박사 취임

▲5. 12. 신흥대학 창간.

▲1966. 7. 30. 본관 석조전 준공

▲1969. 10. 5. 노천극장 낙성

▲1960. 3. 1. 경희대학교로 교명변경.

▲1965. 4. 27. 의과대학 부속병원 착공

▲1968. 6. 8. 제2차 경희대학교 주관으로 세계대학총장회의를 개최.

▲1971. 10. 5. 경희의료원(부속의과병원, 부속한방병원) 개원(1천베드)

▲1979. 1. 10. 수원캠퍼스 설립인가

▲5. 2. 수원캠퍼스 기공식

▲1982. 3. 15 수원캠퍼스 제2호관(외국어 교육관) 완공

▲1986. 2. 28. 사업대학관, 사회과학대학관 준공

▲1990. 10. 12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개관

▲1990. 11. 6.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 개관 대학주보사 편집실 신문방송국 이전

▲1992. 5. 18. 개교 43주년.

## (고) (황) (만) (평)

"마흔 세번째의 포효"


개교 43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상근 :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87년에 졸업하고 삼성전자 상용기술실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다. 바쁜 것을 바쁜 것이라 말할 수 없는게 공직과 학은 닮을의 소명자.

●정 일권 :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86년에 입학하여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이며 최고가 되는것도 중차한 그 과정속에 각기 될 모험들에 더 매력을 느끼다는 용기있는 청춘이.

세계로 꿈을 펴는 젊음

"축제때면 타오르는 봉수대의 불길처럼
우리 경희의 역사도 새롭게 불타오를거야"

경희인—
반세기를 이어 온 그들의 가상이 이제 광활한
제2캠퍼스까지 갖추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하나의 역사를 찾는
선배의 감회는 어떤 것일까?
"꿈 대학하곤 이렇게 새로운 서천캠퍼스를 보니
나날이 커져 가는 우리 경희의 힘이
나시 한번 느껴져.
건물도 서울의 아름다우면서도 섬세한 멋과는 달리
웅장하면서도 강한 힘이 넘치는 것 같고…"
"사실 이곳 캠퍼스는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데
우리 경희의 개척자적인 힘이 어느곳보다도
많이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경희의 전통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축제때만 빼도 서울캠퍼스와 똑같은 이곳
봉수대에 동시에 불을 붙인으로써
생시가 시작되죠."
"그래, 축제때면 타오르는 그 불길처럼
우리 경희의 역사도 이 서천캠퍼스를 통해
다시 새롭고 힘차게 타 오를거야"
배운 곳은 달라도 같은 경희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되는 그날 — 활짝은 어느덧 또 하나의 명물,
신갈호수로 향한다.
"우리 서천캠퍼스의 또다른 자랑이라면
주위에 넓은 산과 들, 호수가 있다보니 자연속에서
하나되는 호연지기의 심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곳 신갈호수만 해도 단골 데이트코스이자
넓은 뜻을 키우는 명상의 장소로도 유명해요.
가끔 나무 호기를 부리다 물에 빠지는 한수가
있어서 말이긴 합니다만…"
"서울은 시멘트 먼덕길이 유명한 데이트코스지,
그런데 ROTC들에겐 그것이 단골
구보코스이기도 해. 주위에선 쌍쌍이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는 죽을둥 살둥 그 인덕을
오르다 보면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연덕'이었지"
두 경희인의 정담은 끝이 없고 졸업을 앞둔 후배는
어느덧 진로문제로 말길을 돌린다.
"그런데 선배님, 요즘은 졸업을 앞두고
과연 진로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군요."
"내가 산 설에 입사해서 놀란게 학교 실습실에선
볼 수 없었던 최단기제품이 즉벼하고 또 그걸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
이렇게 인재들이 마음껏 뜻을 펼 수 있게
도와주는 분위기— 이런게 기준이 되는것
아닌가?"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 생성은 '뜻만 있다면
길도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드는군요…
참 선배는 아직 솔가이시죠?
제가 원목박 필기마틴 한번 주선할까요?
우리 서천캠퍼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랑거리인데, 하하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두 경희인,
그들에게서 갓 판 팔기처럼 풋풋한 젊음의
싱그러움이 넘친다.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